

# 만남



03

2020 통권 554호

특별기획 | 민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중국 우한 교민 품어준 아산 시민들 위한 방역물품 전달

- 우리 교회와 예장 총회, 한국교회총연합이 함께 지원 사역 펼쳐

우리 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2월 7일(금) 오후 4시 우한 교민들이 임시격리생활을 하고 있는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아산 시민들을 위한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 사역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피해 중국 우한에서 철수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충남 아산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뤄졌다. 우리 교회는 아산시에 750만원 상당의 방역용 마스크 5천장과 아산지역 교회들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 2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운성 목사는 “작은 사랑이지만 지역 주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 한국기독교공보

### 교회표어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4:13~14)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 실현

### 5대 본질





#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119대작전을 시작하며 김운성

**연중기획** 04 119대작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박규성

08 이 때를 분별하는 신앙공동체 안순근

10 영락교회의 본질로서 ‘예배’ 백성우

**영락칼럼** 11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황재영

14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 김기순

16 코로나19 어떻게 대처하나? 박도준

**특별기획** 19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  
기독교 여성독립운동가 박선이

22 기독교 청년이여, 다시 나라와 민족을 품으라! 최재선

**땅끝까지 이르러** 24 이 때를 위한 선교 차동혁

26 저도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이혜영

**다음 세대** 28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네 박영희

30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어요 채예주

32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김민우

34 사랑,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정재은

36 끊어지지 않는 세 겹 중보기도의 힘 김지영

**영락의 울타리** 38 영락교회에 새로 왔습니다 탁현수·김진우·이후림

42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 정미숙

44 제자가 되고 제자를 양육하는 곳 김재을

**문화광장** 46 틀리게 부르는 찬송가 박신화

49 90년생이 온다 김종태

52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 그림으로 하나님 자랑 유안미

**교회소식** 53 새가족 환영

54 제직부흥회, 2020년도 항존직 선거 외

59 3월 목회력

60 편집장 레터,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 표지설명



삼일절을 맞이하여 3·1운동과 기독교 정신을 주제로 삼았다. 탑골공원 부조와 태극기 그리고 교회의 이미지를 통해 그때를 회상해 보고, 숭고한 독립정신과 기독교 정신을 상기하고자 한다.

사진 유승현 선임기자

# 이때를 위함이라

## - 119대작전을 시작하며



김 운 성 위임목사

지난해는 3·1운동 백 주년이었습니다. 3·1운동에서 기독교가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역할을 배제하려는 일부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고, 많은 영락의 성도가 여기 참여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문제에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3·1운동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생태적으로 민족과 함께해 왔습니다. 1896년 고종의 탄생일에는 충군애국운동을 벌였고, 독립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05년 9월에 모인 제5회 장로회 공의회에서는 길선주 장로의 발의로 같은 해 11월 감사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전국 교회가 구국기도회를 결정했는데, 이는 노골화되는 일제 침략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을사늑약 후에는 상동교회당에서 연일 수천 명씩 모여 기도했고, 1906년에는 평양 장대현교회당에서 길선주 조사를 중심으로

구국의 목적으로 새벽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민족 교회로서의 기독교의 열정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다가 3·1운동에서 화산처럼 폭발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진 애국정신과 항일정신에 대해 매켄지(F. A. Mckenzie)는 한국 기독교가 워싱턴과 같은 외국의 투사들에 대해 가르침 받았고, 무엇보다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제가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교육과 예배의식을 금하도록 탄압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민족정신, 애국정신은 여타 종교와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도교의 손병희는 법정에서 천도교의 녹명자가 300만이고, 의무부담자가 200만이라고 했는데, 당시 기독교인은 겨우 20여만 명이었으니, 기독교인은 천도교인의 15분의 1 내지는 10분의 1에 불과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발휘한 힘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민족을 위해 용광로처럼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영적 힘이었습니다. 특히 1906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으로 이어졌는데, 소위 평양대부흥운동입니다. 당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영적 현상은 부흥운동이라기보다는 회개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도사 경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회개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까지 자신들의 숨겨진 죄를 회개했습니다. 차마 입 밖에 내기 힘든 죄까지도 봇물 터지듯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부흥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부흥한 것입니다.

2020년에 영락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3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 119일 동안, 우리 각자의 영혼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하루에(1) 한 번씩(1) 하나님께 구하고자(9) 합니다. 기도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119개의 말씀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묵상하고 암송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의 버려야 할 죄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각자가 여섯 가지씩 정해 매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회개하기를 원하며, 각자가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간에는 3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초교파적인 구국기도회를 영락교회에서

열게 될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심정으로 부르짖고자 합니다.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서 119대작전을 통해 기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결케 되길 원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도와 조직이 움직여 가는 영락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영락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울러 이 과정을 통해 응집된 영적 일체성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락교회의 체질이 변해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밋밋하지 않고 화사한 색깔이 입혀진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미래를 위해 교회와 성도 전체가 리모델링되길 원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등불이었고, 견인차였으며, 지속해서 부흥해 왔었습니다만 지금은 비난의 대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은 여기에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이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것처럼, 119대작전이 이러한 우리 상황을 반전시키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만남**

## 119대작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벧전 5:8~9a)라며 날마다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목양부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119대작전’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감안하여 당시의 전세를 역전시켰던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영적 대작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119대작전 로고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이때’를 위해 영적인 작전을 펼치며 금식하고 기도하여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라’라는 2020년 교회 표어에 맞추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라 할 수 있는 이때에 나와 주변과 민족을 살리기 위한 영적 대작전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지금의 시대는 영적 에너지가 소멸되어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긴급한 사이렌이 울려야 할 위기의 때입니다. ‘119대작전’ 로고는 이러한 위기의 때라는 상징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제작했습니다.

위기의 때에 영적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월 6일 금요일 도회를 작전 개시 D-Day로 정하고, 그로부터 119일째 되는 날인 7월 3일을 사탄과의 영적 전쟁 승리를 선포하는 V-Day(Victory Day)로 정하여 대작전을 마치게 됩니다. 작전 기간에 개인별로 행동목표 6개를 정하여 매일 실천유무를 가지고 작전 성공유무를 가리게 됩니다. 이에 따른 세부일정과 워크북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간: 119일간 (3월 6일-작전 개시 D-Day  
~7월 3일-승리 선포 V-Day)

2) 목표: 1인당 119전 100승 이상 / 전교인 백만 승 달성

3) 주요 작전: 6가지의 행동목표 작성 및 실천

- ① 행동목표 6가지(자신의 변화를 위한 3가지 / 주변을 섬기기 위한 3가지) 작성
- ② 작성한 6가지 행동목표를 119일간 매일 실천 상태를 점검하여 승패 기록
- ③ 행동목표 4개 이상 실천(6:0, 5:1, 4:2)은 승, 3개 실천(3:3)은 무승부, 2개 이하(2:4, 1:5, 0:6)는 패로 결정
- ④ 승패 기록지를 작성하여 수시로 수거함에 제출하여 전 교인의 영적 전쟁 점수를 집계한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기 고백을 위하여 무기명 작성 후 제출

- ⑤ 행동목표 작성 : 2월에 기도로 준비하여  
3월 1일까지 완료

#### 4) 세부 작전

- ① 119일간 매일(1) 한 번씩(1) 구(9)하는  
119기도(카드)로 날마다 기도하기
- ② 119일간 매일 제공하는 주제성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홈페이지에도 말  
씀 카드 이미지를 게시하여 SNS로 공유  
가능)
- ③ 매일 성경 읽기로 말씀 무장하기(성경  
1독 목표 - 119일에 1독 or 1년에 1독  
등)
- ④ 자신의 일상적 신앙생활에 대해 영성 체  
크 리스트로 매일 점검하기
- ⑤ 본당(목·금) 및 벨엘기도실(매일)에서  
개인 기도하며 영적 에너지 충전하기
- ⑥ 6·25전쟁 70주년 기념 구국기도대성회  
(6월 25~27일, 본당) 기간 동안 3일 금  
식 기도하기(에스더가 승리할 수 있었던  
영적 대작전의 가장 중요한 공격무기가  
3일 금식기도였던 것처럼 119대작전이  
가장 정점에 다다르는 치열한 영적 전투  
가 될 것이다.)

#### 5) 사전 준비

- ① 특별금요기도회(2월 21일, 28일, 3월 6  
일, 오후 7시 30분)에 참여하여 영적 전  
쟁 대비하기
- ② 워크북 구매 : 2월 23일(주일), 3월 1일  
(주일) 권당 1천 원

#### 119가지 주제별 말씀카드

<p><b>006 가식</b> 마태복음 6장 16절</p> <p>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치는 자들과 같이 술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p>	<p><b>001 119기도</b> 누가복음 11장 9-10절</p> <p>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아에게는 열릴 것이니라</p>
<p><b>007 나눔</b> 히브리어서 13장 16절</p> <p>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p>	<p><b>002 영적경계</b> 베드로전서 5장 8-9a절</p> <p>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p>
<p><b>008 배려</b> 갈라디아서 6장 2절</p> <p>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p>	<p><b>003 전신갑주</b> 에베소서 6장 10-11절</p> <p>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p>
<p><b>009 순종</b> 창세기 26장 4-5절</p> <p>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지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 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p>	<p><b>004 신앙성장</b> 누가복음 11장 9-10절</p> <p>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p>
<p><b>010 이타심</b> 고린도전서 10장 24절</p> <p>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p>	<p><b>005 착한 행실</b> 마태복음 5장 16절</p> <p>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p>

- 6) 행동목표 작성 예시(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목표  
설정)

- ① 자신의 변화를 위한 실천 목표 : 눈뜨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  
하기, 오늘도 불평하지 않고 짜증 내지 않기, 성경 5장 이상 읽  
기, 술이나 담배 끊기, 영성 일기 쓰기, QT 하기 등
- ② 주변을 섬기기 위한 실천 목표 :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  
기, 가족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안부 전화 드리기, 교통법규 지키기 등



「119대작전 워크북」에 119일간 매일 제공되는 주제별 말씀본문과 묵상 및 기도문(예)

## 제71일 “정직”

년 월 일

**여는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기 286장

**말씀 읽기**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말씀 묵상하기

하나님께서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드러나는 행동과 내 말과 내 중심이 일치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의 내 모습은 너무나 거룩한 모습인데, 가정에서, 홀로 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 중심에는 또한 어떠한 생각과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강권합니다.

###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

아래 기도문을 참조하여 말씀 안에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시며,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대로 살아보며 돌아보기

오늘 하루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고, 느낀 점이나 실천하면서 받은 은혜나 응답, 간증등을 기록해 봅시다.

### 말씀으로 무장하기

119일간 성경 1독을 위해 오늘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창 1-8 1 2 3 4 5 6 7 8 마 1-2 1 2

## 제72일 “엄담”

년 월 일

**여는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기 452장

**말씀 읽기**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 말씀 묵상하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선한 말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

아래 기도문을 참조하여 말씀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보며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대로 살아보며 돌아보기

오늘 하루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고, 느낀 점이나 실천하면서 받은 은혜나 응답, 간증등을 기록해 봅시다.

### 말씀으로 무장하기

119일간 성경 1독을 위해 오늘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창 9-16 9 10 11 12 13 14 15 16 마 3-4 3 4



### ▷ 「119대작전 워크북」의 주요 내용

일상적 삶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게으름, 교통질서, 다이어트, 말실수, 배려, 속임수, 양갈음, 용서, 염려, 조급증, 험담, 화해, 협력 등)와 관련된 119개의 성구를 선정하여 말씀 묵상 및 기도문 등을 담았습니다. (6쪽 참조) 해당 주제성구와 기도문은 매일 하나씩 뜯어낼 수 있습니다. 비닐 케이스 상태로 휴대하며 말씀 암송과 묵상 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119일간 1독할 수 있는 성경통독표는 물론 30일, 60일, 365일 동안 1독할 수 있는 성경통독표도 함께 제공합니다. 매일 작성한 행동목표 실천을 위해 하루 (1)에 한 번(1) 구(9)하는 119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매일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앙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 승패기록지

자신이 정한 행동목표의 실천 여부를 매일 체크하되 실


### 승패기록지

119대작전을 위해 작성한 6가지 실천사항에 대해  
**매일 실천 유무 개수와 승패를 기록해서 제출함에 넣어 주세요.**


실천 개수:    :



**승리**



**무승부**



**패배**

실천한 개수와 못한 개수에 따라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6:0, 5:1, 4:2는 승리, 3:3은 무승부, 2:4, 1:5, 0:6은 패배

**119대작전**  
**한 줄 간증문**

※ 119대작전을 실천하면서 받은 은혜나 체험, 삶의 변화 등의 간증을 간단히 기록한 다음에 제출함에 넣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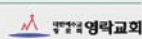
---

---

---

---

---



승패기록지 뒷면은 한 줄 간증문으로 구성되었다.

천한 갯수와 못한 갯수에 따라 6개 중 4개 이상 실천은 승리, 3개는 무승부, 2개 이하는 패배 스티커를 붙입니다. 승패 기록지는 교회 곳곳에 비치된 상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출함 위에 비치된 승패기록지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 익숙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승패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승패 기록을 매일 집계하여 승률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일평생 동안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영적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2020년 119대작전 기간 동안에 겪게 될 119번의 영적전쟁에서 성도들의 많은 영적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인당 119전 100승을 목표로 열심히 실천하시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혹시 주일성수나 교회봉사 등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습관적이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119대작전을 통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영적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앞으로 더 크고 더 중요하고 위급한 영적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9대작전 작전 개시! **만남**



박규성 목사  
성동·광진교구  
목양부, 권사회

## 이때를 분별하는 신앙공동체

### - 119 대작전에 즈음해

101년 전 3월 1일을 기해서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일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국민의 2%도 채 안 되는 기독교가 전 민족적 독립운동의 견인차 노릇을 잘 감당했는데, 오늘날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기독교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자문자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3·1운동의 시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줄 분들이 안 계십니다. 하지만, 영락교회 75년의 생생한 역사를 지금도 증언해 주실 어른들은 계십니다. 그령기에 119 영적 대작전 운동을 시작하는 이즈음에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영락교회 부흥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영락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세상을 분토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우선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바닥나도 주일을 거룩히 지켜 생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둘째, 영락교회는 고향 산천을 떠나 온 실향민이 고향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자리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 안에서 참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안순근 원로장로  
용인·화성교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겠는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119대작전에서 생명수같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온전히 잠기면, 꺼져가는 교회의 등잔의 심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돋우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셋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간절히 사모해, 모이면 열심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또 들려주시는 말씀인 목사님의 설교가이 민족의 나아갈 길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갈급한지 자문해 봅시다.

위에 열거한 것들 외에도 많은 요인이 작용했으리라 보나 다만, 분명한 것은 온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교회 부흥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주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리신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겠는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웃과의 교제가 사교 모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둘째, 세상 풍조나 사회 흐름에 편승해 항방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향해 힘써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 그 말씀 따라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금, 한국 교회가 사회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예전과 달리 선포되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말씀의 홍수에 정작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적셔 줄 생명수를 찾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락의 강단에서는 쓴물이 흘러나오는 일 없이 언제나 생명수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시작하는 119 대작전에서 생명수같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온전히 잠기면, 꺼져가는 교회의 등잔의 심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돋우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날**

## 영락교회 4대 목표에서 5대 본질로 : 예배를 중심에 둡니다

백성우 선임목사

‘교회란 무엇인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주요한 역사적 방식 중 하나는 교회의 본질, 또는 본질적 사명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락교회도 ‘4대 목표(교육·선교·봉사·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본질적 사명을 분명히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이 ‘예배’임을 기독교 전통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며 너무도 당연했기에 우리는 예배를 별도로 구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9월 정책 당회를 거치면서 교회의 본질로서의 예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이제까지 4대 목표로 표명했던 교회 이해를 ‘예배’를 포함한 ‘영락교회의 5대 본질’로 이해하고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기독교 전통도 예배가 교회의 본질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인 ‘에클레시아(Ekklesia)’의 뜻이 ‘주님에 속한, 주님의 것인’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배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 개혁자이자 장로교의 시초로 여겨지는 존 칼빈도 교회 이해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예배 공동체’로 이해했습니다. 칼빈은 예배와 함께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기도, 교육, 선교 등을 포함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마리아 해리스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음과 같이 알려 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전(Leiturgia), 성도의 공동체적 교제

(Koinonia), 가르침을 통한 교육(Didache), 복음의 선포(Kerygma), 섬김에 의한 봉사(Diakonia). 해리스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이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본질적 활동이 건강하게 연결되어 형성될 때 그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형성”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로서 예배는 무엇일까요?

짧은 지면을 통해 핵심적인 답을 소개하자면, 폴 훈 교수의 설명이 도움이 됩니다. “기독교 예배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 행위”라는 것입니다.<sup>1</sup>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상응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 그러므로 예배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기독론)로 나타난 구원의 진리(계시적)와 이 진리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성령론) 안에서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참된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위에서 영락의 모든 성도가 예배를 가장 우선하는 가운데 교육·선교·봉사·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영락교회의 5대 본질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

1 제임스 F. 화이트, 정장복 조기연 역 (2017), 『기독교예배학 입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5쪽.



##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후 로마군사들에게 붙잡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처절하게 표현한 영화 ‘패션 오브 크리스트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슬퍼하며 절망하며 기도하신 것이 좀 더 잘 이해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 26:38) 부탁하신 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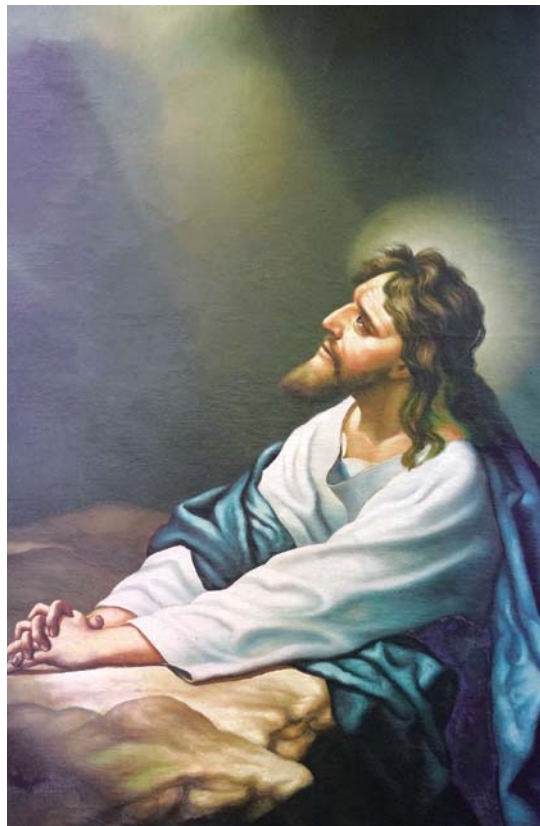
예수님은 기도가 끝나면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고 그 이후로 겪을 십자가의 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영화에서 적군의 공격이 곧 임하게 될 때 공습경보가 울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이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공포의 엄습 가운데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시험을 이겨 내시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처럼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는 시간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부활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실 때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수정과 보완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난의 정도, 채찍 맞음, 통증의 강도 등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변화의 옵션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옵션 중에서 충분히 유리한 것들만을 선택하시기에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체포되신 일, 끌려가신 일, 심문을 받으신 일, 십자가를 짊어진



영락기도원에 걸린 성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담고 있다.

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일, 그리고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모든 일을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원함의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깨끗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원함심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예수님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당할 고난을 알고 계셨기에 쉽지 않은 '맡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개미와 베짖이 얘기를 생각해봅시다. 개미가 한여름에 열심히 준비함으로써 겨울에 찾아오게 될 그 추위와 배고픔과 그 모든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무언가 하려고도 했지만 아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 많이 깨어서 준비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이 더 많이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었어야 지금의 이러한 시험과 환란들을 어렵더라도 견딜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과 환란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과 환란이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시간에 이미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문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친밀해지도록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나에게 별다른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기도는 그저 빛진 자의 기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쌓아 놓는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환란과 유혹 가운데 계실 때 언제나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심으로 흔들림 없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의 중심을 본받아야

사순절 기간마다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와 붙잡힘과 수난을 항상 묵상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과소평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니까 우리와 달리 쉬우셨을 거야'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神)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은 오직 신적인 도움에 의한 행동이다'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짐으로써 우리도 역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적이고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여름에 개미들이 애쓰고 힘을 쏟아 냈을 때 겨울의 환란을 이길 수 있듯이, 우리가 감자기 성령의 불 받아서 기적적으로 그 어떤 일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

간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려고 노력할 때 환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성취되는 기쁨의 일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지향적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는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만남도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도 더욱 깨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나에



황재영 목사  
영락기도원

### 그리스도의 길 따르는 묵상으로 초대

사순절은 영적인 담금질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성도들의 사순절 묵상을 도와줄 묵상집 2권을 소개한다.

#### 가상칠언 묵상

(김영봉 지음/IVP 펴냄/125쪽)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가상칠언의 주제에 따라 묵상한 책이다. 예를 들어 십자가 위 첫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눅 23:34)를 묵상하는 첫 주에는 교만을 묵상할 수 있는 욥기, 용서를 생각해볼 수 있는 마태복음 등이 본문으로 나온다. 사순절 기간의 평일과 주일뿐만 아니라 부활절이 포함된 주 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47편의 묵상을 담았다.



####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

(김진산·강신덕 지음/토비아 펴냄/156쪽)

‘영적 순례자들을 위한 40일 묵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이스라엘의 성지 40곳을 선정, 사진과 함께 글을 실었다.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여정을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어린이들을 위한 사순절 묵상집 『예수님을 따라 걸어요』도 눈에 띈다.



장덕진 편집위원

##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윤리의식 때문이다.

윤리의식이란 착함·악함·옳음·그름(善惡是非)에 대해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착함(善)과 옳음(是)은 좇고, 악함(惡)과 그름(非)은 내쫓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윤리의식은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 짓는 표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윤리의식이 ‘인간으로서 그의 도덕적 우수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선악시비(善惡是非)는 본래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동산에 두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살아가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크리스천은 위에서 언급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이외에 기독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른 윤리의식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 신자로서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윤리의식이기도 하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 짓고 있다. 그렇다면 윤리의식을 통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듯이, 윤리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 중에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려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차이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아무리 좋고 가치 있어 보이더라도 그것을 내가 무조건 차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회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게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를 부도덕한 사회로 타락시키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한 인간을 윤리적 존재로 올바르게 규정짓기 위해서는 윤리적 존재 일반으로 규정짓는 한계를 뛰어넘어, 기독교적 윤리의식을 지닌 인간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



김기순 베엘교회 은퇴장로  
숭실대 철학과 명예교수





성서의 십계명에는 기독교의 윤리적 요소들이 잘 요약되어 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기독교의 윤리적 규례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십계명에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켜야 하는 윤리적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예언자적 기능을 보여주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그렇다. 진정한 의미의 윤리적 규범이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진정한 윤리적 규범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십계명의 예언자적 기능(5~10계명)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 특히 한 사람의 기독교 신자로서 지켜야 할 핵심적 규범으로서 '사랑'을 의미한다. '사랑'은 상대방(이웃)을 위해 개인의 이해관계는 물론,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도록 명령하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이처럼 기독교의 윤리 규범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유익함'을 준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의 도덕적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깨닫고, 개인의 이익 추구에 있어서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참다운 윤리(도덕)의식이란 하나



## 십 계 명

제일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삼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구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십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님께서 주신 공동체적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능력과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필요한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유익은 등한시하게 된다. 참다운 가치는 대체로 개인의 가치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에 생성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윤리의식과 더불어 기독교적 윤리의식은 반드시 함께 작동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선악사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크리스천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참된 영역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만남**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어떻게 대처하나?

1월 중순부터 갑자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위 우한 폐렴으로 인해 우리 국민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2월 4일을 기점으로 정부에서는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도 일시 중단시키는 초유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이러한 자연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영락교회 교인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 어떤 병이고 왜 중국인가?

이 병은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병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견되는 바이러스이고 겨울이면 우리가 앓게 되는 감기의 원인이 되는 여러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는 저절로 낫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긴장하는 것일까요.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 즉 박쥐라든지 오소리과 같은 야생동물에도 잘 감염되는데, 이렇게 야생동물의 것과 사람에 감염되던 코로나바이러스가 합쳐져서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빠르게 전염이 되고,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사스(SARS)도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에 해당하며, 이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 새롭게 발생한 감염병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감염병이 잘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인의 식습관과 관계가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아직은 위생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많다 보니 이러한 새로운 감염병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도준 안수집사  
서초교구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침방울(비말·飛沫)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환자가 기침하거나 말할 때 퍼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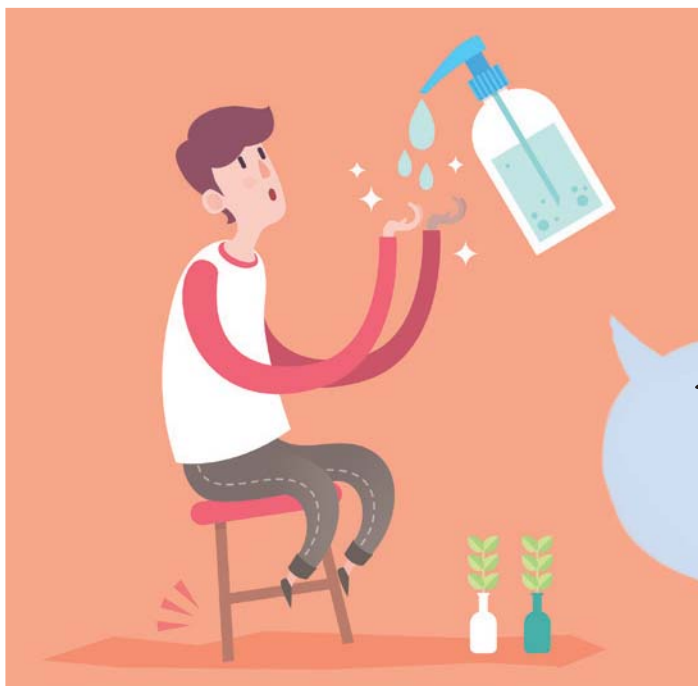
즉 환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거나 기침할 때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던 침방울이 튀게 되고, 코로 호흡할 때 이 침방울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이 손잡이나 옷깃, 책상 등 여기저기에 묻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만지게 되면 우리 손에 묻어 있다가 얼굴에 손을 대면 균이 코를 통하거나 입안의 점막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침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직접 기침 때문에 감염

되는 것보다 여기저기에 묻어 있는 균을 손으로 만져서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씻을 때는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로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 세정제나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 침방울에 의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병의 70% 이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일반 마스크를 쓰는 것은 병의 예방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굴에 밀착이 되고 침방울을 잘 막아줄 수 있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마스크는 황사마스크라고 알려진 KF94 마스크를 쓰시면 됩니다. N95라고 가장 안전한 의료용 마스크도 있으나 이는 제대로 밀착해서 착용할



기침은 옷깃에 대고,  
마스크는 밀착이  
잘 되게 착용

경우 20~30분 이상 사용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약간 성능은 떨어지지만, KF94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스크 위쪽을 잘 구부려서 코의 굴곡에 잘 맞춰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얼굴에 잘 밀착이 되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1회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면 안 되므로 폐기해야 합니다. 빨아서 쓰거나 말려서 쓰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으며 감염의 위험만 커집니다.

혹시라도 기침하게 되면 그냥 허공에 대고 기침하거나 입을 막더라도 손으로 막지 말고 옷깃에 대고 기침해야 합니다. 환자가 입을 손으로 막고 기침하게 되면 균이 손에 묻어 있다가 손으로 다른 물건을 잡을 때 균이 옮겨가거나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 씻기를 잘하고 마스크를 잘 쓰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대표적인 증상은 열이 나고 기침, 가래가 생기고 팔다리가 쑤시거나 호흡곤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가지 말고 1339(질병관리본부)나 120번(다산콜센터)에 전화해서 어디에 가서 진료받으면 되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개인병원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큰 병원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곳으로 가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남**



## 3·1독립운동 101주년에 다시 보는 기독 여성독립운동가



독립운동사에 새롭게 기억될 여성들. 남자현(2016년)에 이어 권기옥, 김마리아, 안경신의 모습을 담은 기념우표가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발매됐다.

지난해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여러 면모가 새롭게 재조명되었습니다. 특히 역사(history)에 뚜렷한 기록을 남기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의 역사(herstory)가 주목받았지요. 2019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서훈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357명입니다. 기록에 남아있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여성이 2000여 명, 이름조차 남지 않은 여성은 또 얼마나 될까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20세기 초를 전후해 전국 곳곳에 설립된 기독교 여학교 출신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특징입니다.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세상과 역사에 대한 눈을 뜬 선각 여성들입니다. 3·1독립운동 101주년을 맞는 올해, 기독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 여성 독립운동가와 기독교 여학교

1886년 5월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부의 선교사 메리 스

크랜튼 여사가 서울 중구 정동 자택에서 여자아이 한 명으로 시작한 이화학당을 시초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전국 곳곳에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개교 33년 후 이화학당 학생인 류관순은 고향인 충청도 병천에서 아우내 만세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주모자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던 그는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찌 군기(軍器)를 사용해 내 민족을 죽이느냐”라고 당당히 맞섭니다.

류관순의 독립운동과 역사 인식은 결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참된 신앙과 진취성, 주체성을 배운 여성들은 일제의 조선 병탄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예리하게 비판했으며, 성서에 담긴 유대 백성의 고난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조선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을 깊이 연구한 심옥주 한

국독립운동연구소장은 “해의 문물의 유입과 선교사의 활동이 자유로운 지역일수록 교육기관이 활발”했다며 기독교 여학교를 기반으로 한 여학생 비밀결사대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지적합니다. 개성 호수돈 여학교, 평양 송의여학교, 서울 이화학당, 부산 일신여학교, 대구 신명여학교, 전주 기전여학교, 광주 수피아학교, 광주 영명학교 등 여성독립운동을 키워낸 기독교 여학교는 수없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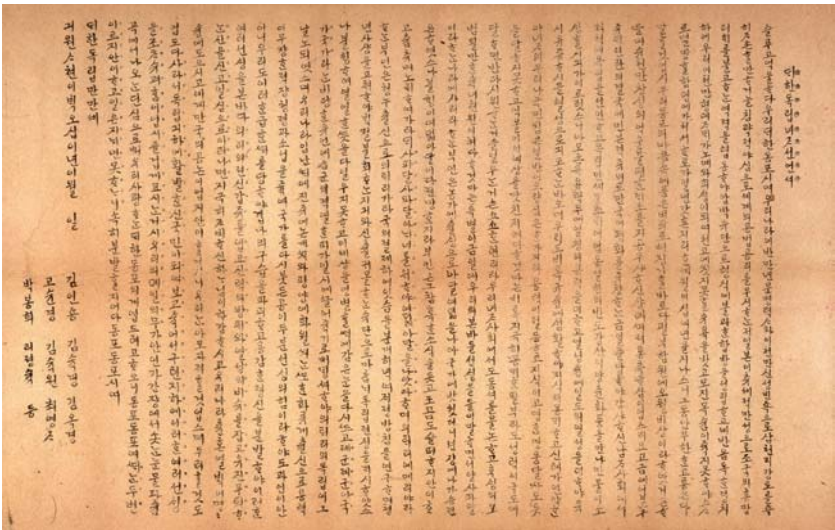
대한독립여자선언서

3·1 독립선언문 선포 한 달 뒤, 4월 8일 ‘대한독립여자선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슬프고 억울하다. 우리 대한동포이시여”라고 시작하는 이 선언서는 ‘대한민족 부인동포의 대 정신 대 자각을 성명하는 선언’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선언서는 일본 침략을 비판할 뿐 아니라 여성 활동의 중요성과 함께 국난에 처한 여성의 할 일을 강조했습니다. 최남선이 기초했던 3·1 독립선언문과 가장 다른 점은 한문 투의 어려운 문장 하나 없이 순 한글로만

썼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분명하게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여성들의 깨어있는 역사 인식과 저항정신, 위기 극복의 지혜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101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남자현, 권기옥, 조화벽, 김마리아, 안경신...

영화 ‘암살’에서 일제식민지배자들을 처단하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모델이 남자현입니다. 1872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난 그는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독립 운동단체인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에서 활약하는 한편, 동만주 12곳에 교회를 세워 전도와 여성 교육에 힘썼습니다. 1924년 사이토 총독 암살에 실패한 뒤 다시 만주로 돌아가 하얼빈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던 그는 1933년 만주국 일본대사 무토 암살계획에 참여한 후 체포되어 갖은 고난을 겪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고 그의 고향 영양에 기념비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대한독립여자선언서. 1919년 4월 8일 발표됐다.

| 제공 독립기념관



중국에서 비행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권기옥(왼쪽 두번째)



사진 왼쪽부터 김마리아, 안창호, 차경신. 차경신은 김마리아와 함께 2·8 독립선언에 여학생 대표로 참여했다. | 재공 독립기념관

마펏 목사가 세운 평양 송의여학교는 일본어 수업 거부, 성경 과목 폐지 거부 등 뚜렷한 항일 정신을 새긴 학교입니다. 이 학교 송죽결사대에서 활약한 권기옥은 3·1 독립운동 후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 활동을 도운 혐의로 옥고를 치르고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중국 운남항공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1932년 상해사변 때 일본군을 기총소사로 물리친 공으로 중국 정부의 무공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는 임시정부에서 한국 비행대 편성과 한국 광복군 건군 미 작전계획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힘썼습니다.

개성 호수돈여학교 출신 조화벽은 함경도 원산성경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근대교육을 받았습니다. 호수돈여학교 기도실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한 그는 다른 학생들과 기도회를 마치고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한 뒤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자 조화벽은 버선목에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고향인 강원도 양양에 돌아가 그곳에서 만세 시위를 계속했고, 후에 고향에 정명학원을 설립하고 상해임시정부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류관순과의 인연으로 1925년 류관순의 오빠 류유석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설립된 황해도 장연군 소래마을에서 태어난 김마리아는 대표적인 기독교학교 중 하나인 연동여학교(정신여학교의 전신)를 졸업하고 일본, 미국 유학을 거쳐 정신여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 직전 있었던 도쿄 2·8독립선언을 현장에서 겪었던 그는 일본 여성으로 변장하여 기모노 띠에 독립선언서를 숨겨 귀국합니다. 3·1운동으로 5개월간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후 출옥한 그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식민지 조선의 여성 계몽과 독립운동에 힘썼습니다.

안경신은 평안남도 출신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3·1운동 당시 평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듬해,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일본 경찰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그는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집니다. 7년 만에 출옥한 이후 안경신의 삶은 별달리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잊혀진 삶에 안경신의 이름을 더합니다. **만남**

글 박선이 선임편집위원



## 21세기 기독 청년이여, 다시 나라와 민족을 품으라!

만물이 태동하는 봄이 시작되는 3월이면, 어김없이 3·1절이 찾아옵니다.

2020년 올해로 101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을 생각할 때, 젊은이의 위풍당당함과 푸르른 기상을 가진 수많은 청년의 뜨거운 함성과 나라 사랑의 열정이 떠오릅니다. 100여 년 전 이때, 기독 청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들을 통해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선도했습니다. 이들은 일제의 억압 아래 신음하고 있는 조선을 위해 자신들의安危를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초개와 같이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의 위기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 낸 주역들입니다.

특별히 당시 3·1운동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한 신한청년당을 살펴봄으로써 기독 청년들이 지녔던 나라 사랑에 대한 정신을 확인해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최재선 목사  
청년부 전담

### 1918년 기독 청년으로 구성된 신한청년당의 활약

1918년 8월경 한인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던 여운형 외 5인을 중심으로 상해에서 창당된 '신한청년당(The New Korea Young Men's Association)'은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신한청년당은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조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물론 평안도와 충청도에 이르기까지 20세 이상에서 40세 이하의 전도유망한 청년 인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신한청년당은 ① 대한민국 독립의 완성 ② 사회제도 개선과 개혁을 통한 세계화 ③ 국가 간 인류의 평화와 협력이 라는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해 이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청년 그룹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조국 해방의 노력과 함께 나라와 민족의 현실과 미래에 있어 얼마나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고자 했는지 그 강렬한 의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한청년당에 참여한 청년들 중 대다수는 기독교 청년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국내에서 민족 독립을 위해 지속적인 장려와 준비를 한 것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한청년당은 1919년 파리 강화회담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으며, 미국 대통령 특사인 찰스 크레인(Crane)을 통해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과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독립의식을 고취했으며, 3·1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후 신한청년당은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020년 기독교 청년의 나라 사랑

나라와 민족의 긴박했던 그 순간에는 항상 기독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몸을 다하는 전심전력을 통해 나라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이때를 위함이라’(에 4:13~14)를 통해 주전 2500년 유대민족이 생사기로에 서 있을 때, 왕후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4:16)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에스더의 영적 구국 운동의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0여 년 전 3·1운동에서 보인 믿음의 청년 선배들의 삶과 신앙의 자리는 불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구원의 통로가 된 에스더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 삶과 신앙의 자리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현재와 아주 밀접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를 통해 도전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2천 년 전이든 1백 년 전이든 상관 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때보다 더 큰 어둠과 현실의 위기들 앞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와 민족의 생사존망이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기독교 청년의 영적 기상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잠잠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았으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과 섬김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이 우리나라를 말씀의 기초와 기독교적 가치와 이념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자 헌신하며 노력해왔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역시 이 신앙의 영적 유산을 따르며 이어나가기 위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만남**

## 이때를 위한 선교

저의 핸드폰에는 두 개의 알람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핸드폰 제조사의 기본 알람 앱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설치한 앱입니다. 기본 알람 앱에는 매일 네 개의 알람이 2분 간격으로 울리도록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앱에는 한 개의 알람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알람은 간단한 수학 문제 세 개를 풀기 전에는 꺼지지 않습니다. 매일 밤 저는 다음 날 새벽을 위해 맞춰둔 다섯 개의 알람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 놓고 잠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알람 한두 개 정도에는 “2분만 더”를 외치며 또다시 잠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끔은 알람 다섯 개를 모두 끈 후에 끈 줄도 모르고, 아니 알람이 울린 줄도 모르고 잠들어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알람은 수학 세 문제를 풀어야 멈추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알람을 울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인 ‘이때를 위함이라’처럼, ‘이때’라는 알람이 지금 우리 영의 컵가에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적 알람에 “2분만 더”를 외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습니다. 알람이 울리는 것조차 모르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그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선교란 ‘이때를 위하여’ 울리는 영적인 알람 소리에 응답하는 행동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주님의 현재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지난 때도 아니고 나중 때도 아니라 지금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부르신 때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영락교회의 선교 사역도 때에 합당한 응답의 결과로 내적 변화와 외적 확대를 거듭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선교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교 사역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 정신입니다. 그것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 4:14)라는 모르드개의 질문에 대한 에스더의 응답과 같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4:16). 선교의 정신은 주께서 이때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며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각오와 기도에는 “2분만 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2분 후의 선교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이때 결단하는 우리의 선교 정신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에는 브리타니 베빈이란 여성의 일기가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제가 걷는 길로 삼심한 사람들을 보내 주시고, 제가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제 안에 당신을 가득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문은 브리타니가 열일곱 살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기 전날 밤에 쓴 것입니다. 브리타니는 마지막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장례식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애가 죽던 날 그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다. 그 애의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다. 그 애가 어느 대학에 갈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다. 그 애가 학교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축구 시합에서 몇 골을 넣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다. 오직 그 애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다는 사실만 중요합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는 윌리엄 보든(Borden, 1887~1913)이라는 미국 출신의 유명한 선교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이유는 그가 맺었던 선교의 열매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선교의 정신 때문입니다. 역만장자의 후계자로 태어난 보든은 고등학교 졸업 후 세계여행을 합니다. 이 여행에서 그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이 다짐을 편지로 써서 부모에게 보내고 는 자신의 성경책 맨 뒷장에 두 단어를 적어 넣습니다.

### “No Reserves(남김없이)”

세계여행 후, 예일대학에 입학한 보든은 선교로의 부르심을 나중으로 미뤄놓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 모임 운동을 시작합니다. 1학년 초, 두 명으로 시작한 기도 모임은 그가 졸업반일 때 약 천 명의 학생이 동참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일대 학부생은 총 1,300명이었다고 합니다.

보든은 예일대 재학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고, 졸업과 동시에 유망한 직장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를 위해 모두 거절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합니다. 이때 그는 성경책 말미에 두 단어를 덧붙입니다.

### “No Retreats(후퇴 없이)”

신학대학원 졸업 후 그는 중국 간쑤성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먼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척수막염에 걸리게 되었고, 한 달 뒤 스물다섯의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죽음 직전, 그의 성경책 마지막 장에는 또 다른 두 단어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 “No Regrets(후회 없이)”

세상의 눈에는 열매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보였겠지만, 주님 눈에는 너무나 값진 보석이었습니다. 선교의 열매보다 값진 선교의 정신이 빛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결과적으로 그의 선교 인생을 열매 없이 놓아 두지 않으셨습니다. 보든과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수많은 예일의 기도동역자들이 빛나는 선교의 20세기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영락교회의 선교도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2분만 더”를 외치지 않는 선교, ‘이때’의 영적 알람에 즉각 “아멘”으로 응답하는 선교, 즉시 눈앞에 보이는 열매나 객관적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선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선교, 일하는 발보다 기도하는 무릎이 먼저인 선교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선교부는 선교부 전체 신년기 대회로 출발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후원팀도 조직했습니다. 이 기도의 작은 불씨들이 함께 모여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사역지와 선교지에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불길의 한가운데에서 ‘남김없이’ 헌신하고 ‘후퇴 없이’ 기도하며 ‘후회 없이’ 선교하는 이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차동혁 목사  
선교부 전담

## “아! 저도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 선교훈련학교 일본 비전트립 후기

선교훈련학교 과정을 1년 마치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으로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최초의 선교지이며 기독교 박해 현장인 나가사키에서 출발, 오사카까지의 순례를 통해 미전도종족(기독교 1%)으로 분류되는 일본선교에 관한 관심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 첫째 날: 후쿠오카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일본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20년 전 약 7년 동안 동경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를 하나님은 일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공항에 도착하여 일행들을 만났고 다 같이 모여 조두형 목사님의 기도 후 후쿠오카로 출발했습니다.

#### 둘째 날: 박해 현장 나가사키

아침 일찍 우리 일행 15명을 태운 대형 버스는 26인 순교자 기념관과 이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오우라교회로 향했습니다. 오사카와 교토에서 체포된 26인의 순교자는 갓볼이 잘린 채 피를 흘리면서 맨발로 포승에 묶여 나가사키까지 끌려가 십자가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분들의 영성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순교자 중에는 10대도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사형에서 제외되었지만 스스로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라며 기꺼이 순교를 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돌아보며 기념관을 내려왔습니다.

일찍 점심을 마치고 12시 반에 나가사키에서 출발하여 오사카역까지 무려 6시간을 이동했습니다. 전효원 선교사님을 만나 선교사님의 사역 교회인 블레싱교회를 방문하니 마침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위해 너무도 예쁘게 꾸며져



일본 나가사키시 니시자카 공원에 위치한 26 성인 순교기념비 앞에서





귀국 전 마지막으로 들른 카페에서 일본인 아르바이트생(오른쪽 세번째)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  
오른쪽 첫번째가 필자.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거리공연으로 청년 사역을 하는 동영상을 보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400년 전 이곳 오사카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체포되어 나가사키까지 끌려간 26인의 순교자들의 핏값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 마지막 날(주일) :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본인 자매

오전 10시 30분 블레싱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전 우리 팀을 위해 특별히 춤 공연을 보여준 청년사역단은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 카페에 잠깐 들렀습니다. 음료 등을 주문하고 돌아오니 일행 중 한 분이 물을 쏟았습니다. 일본인 아르바이트생이 걸레를 갖고 와서 닦을 때 함께 닦으면서 “저희는 서울에서 왔고요, 교회에서 왔어요” 했더니, “아! 저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블레싱교회 주보와 제 메일 주소를 주고 서울에 돌아왔는데 벌써 그분의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고 흥분되어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고 일본의 선교사님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블레싱교회에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카페로 인도하신 분도, 카페에서 물을 쏟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20년 전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곳 일본 땅에서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 봅시다.

오사카에 오기까지 우리는 3일간 특히 지하철역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국산 김과 일본어판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일본인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다. 국산 김의 인기도 좋았고, 젊은 사람들은 끝까지 전도지를 읽었습니다. 생명대각성 운동으로 한 영혼까지도 사랑받는 법을 배운 우리 일행은 이 일본 땅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차 시간에 쫓겨서 돌아가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카페에서 젊은 일본인 자매를 만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주셨고, 그 자매를 만난 일을 계기로 일본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일행 모두는 그 일본인 자매의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한 사람이 변화되어 주변을 변화시키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 일본이 변화되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남**

이혜영 권사\_서초교구





## 사랑부



## 나의 사랑 사랑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네

“선생님! 우리 00는 장애인 일반적 평균 수명 50세가 넘어 노화 현상이 빨리 와서 이제는 치매약 등을 처방받게 되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몇 주일 교회 출석을 못하는 학생에게 전화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심정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장애인 부모는 “자식보다 하루 더 살기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 혼자서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므로 부모님에게 하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을 염려하며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찬양 시간마다 앞에 나가서 비록 찬양곡 리듬과는 다르더라도 우리 가락으로 즐겁게 춤추고 들어오곤 하며, ‘2층 사는 이계향’이라고 이름도 잘 쓰고, 막내가 사 준 목걸이를 자랑하던 학생이 어느 주일부터인가 이름 쓰는 곳에 동그라미만 그리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윽고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드러눕거나 떼를 쓰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점차 상황이 나빠져 6개월 이상을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매주 토요일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묻고 심방도 하며 고생 많은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곤 했습니다. 그 후 건강이 더 나빠져서 정신과 안정제를 복용하면서 조용해지고 스

스로 걷는 대신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그토록 그리운 사랑부 예배에 다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울동이나 대화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의 공간에서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영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감이 기쁩니다.

계향 자매를 담임하는 동안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님과 남동생이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도록 권유했고, 작년에는 계향 자매가 그토록 좋아하는 막내 여동생 내외분을 생명대각성 운동 기간에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새가족교육을 마치게 된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온 가족이 연약한 계향 자매를 중심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며, 특히 막내 여동생 내외분은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도와 연약한 언니의 온갖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심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여러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 만남이 이루어져 복음 제시로 구원의 선물도 드리고, 위임 목사님의 설교를 육성으로 한 번만이라도 들어주기를 간곡히 원했는데 교회에 방문하는 그 첫 주일에 등록까지 하게 된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엄마! 우리 가족 모두 계향언니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라고 했다 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계향 자매의 결석 기간이 길어지면서 새로 담임하게 된 민형이는 7~8세의 귀여운 소녀의 모습이지만 20살이 넘는 숙녀입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특히 아버님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남자 선생님의 무릎이나 남학생을 좋아하는 민형이는 오랜 병원 생활 탓인지 병원에서 쓰는 면봉, 족집게, 체온계, 약 수저, 폴더폰 등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머리핀, 곰돌이 푸 인형, 빨간 레고 블록 등을 손에 들고 옵니다. 이런 것들을 거드랑이에 끼고 양손에 들고 의자에 앉지도 않고 사랑부실 뒤 공간을 분주히 오가는 모습은 마치 바쁜 병원의 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빠른 박자의 찬양 때는 빠른 걸음으로, 기도나 설교 때는 느린 걸음이나 바닥에 앉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 예배의 분위기를 알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는 목에 걸기를 싫어하던 이름표도 착용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떨어져 생활하는 나들이도 경험해 보았고, 위험한 물건은 맡겨두었다가 예배 후에 받는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으며 교회에 가지고 오는 물건도 한 개로 줄어서 무엇보다 두 팔이 자유로워짐이 얼마나 좋은지요. “민형이 사랑해요”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고, 선생님의 목을 꼭 껴안아 줄 때의 사랑스러운 느낌은 사랑부 교사만이 맛볼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올해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는 사랑부 내의 유일한 청각장애와 발달장애 학생으로 글도 읽고 쓰고 성경 필사도 하는 수영선수 출신인 멧쟁이 신사 민진이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민진이와 사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 여사를 지도하신 방법을 생각하며 첫 만남은 핸드폰의 음성·문자 전환기능을 이용하여 얼마간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과 준비 외에도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 모두 미리 글로 써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신 원로목사님께서 사랑터 1집(1999년 4월 발행, 창립 1주년 기념) 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장애 아들은 평균적인 의미에서 결코 열등하거나 부족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더 요구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교회는 진정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이 아동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앞날을 축복하여야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원로목사님의 말씀과 지적 장애인 공동체를 세운 장 바니에(Jean Vanier)의 말씀인 “그들이 바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 즉 함께 머물며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특별한 선물인 이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만남**



박영희 권사  
서대문·은평교구  
사랑부 교사

##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어요

1월 17일, 드디어 기다리던 중등부 겨울수련회 날이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수련회장에 도착했다. 수련회에 참가하는 많은 친구가 조를 나누어 수련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도원에 도착하니 비로소 실감이 났다. 점심을 먹고 짐을 놓고 여는 예배를 시작했다. 기도원 강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평소에 중등부에서 드렸던 예배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다. 수련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기에 예배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다. 또 수련회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이번 수련회 주제인 'I'm Free(아임 프리)'라고 적혀 있는 팔찌 중 노란색 팔찌를 받는 사람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셨다. 나도 이 팔찌가 너무 갖고 싶어

서 수련회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조끼리 조 이름과 구호를 정한 후 대그룹 시간까지 마치고 저녁 식사 후, 본격적인 저녁 집회를 시작했다. 수련회 강사로 오신 김성중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강의해주셨고, 특별 기도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정말 몇 년 만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운 것 같다.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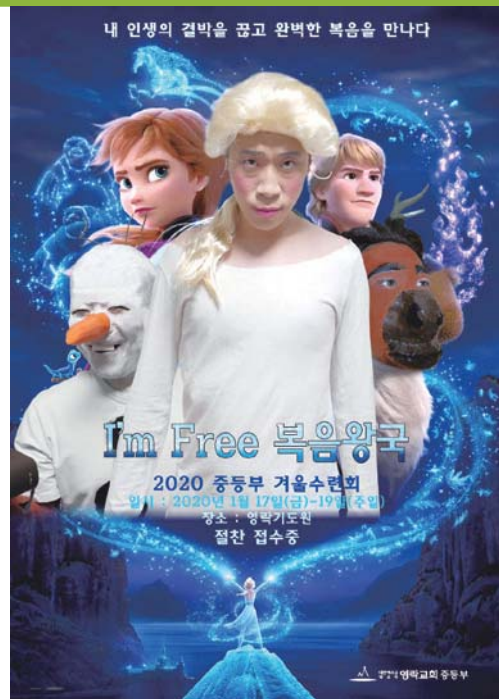
둘째 날, 전날 기도 시간에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통통 부은 친구들이 무척 많았다. 모두 예배를 열심히 드렸나 보다. 기상 미션을 하고 아침 식



# I'm Free

사 후 코스 프로그램을 했는데 기도원 곳곳을 다니며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는 재미있는 활동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점심 후 특활반 소개 시간에 나는 학생회를 소개했다. 많은 중등부 친구들이 특활반에 참가하면 좋겠다. 다음은 중등부를 지도하시는 이영호 목사님께서 창조와 진화에 대해 강의해주셨는데 둘 중 무엇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흥미로운 주제라서 더 재밌게 참여했다. 그다음 브레이크 타임에 서로에 대해 카드를 가지고 질문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을 통해 서로의 중요한 것을 더욱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두 번째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다. 김성중 목사님께서 진행하셨는데, 자신의 눈과 귀, 손과 머리,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내가 굉장히 잘 살아왔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의 잣대로 살던 나였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울며 회개했던 것 같다. 정말 이때 수련회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뛰고 춤추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가 수련회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다. 진심으로 춤추고 뛰며 찬양하는 일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라는 걸 느꼈다. 단체 사진을 찍고 수련회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끝났다.

마지막 날, 전날 너무 신나게 찬양해서 그런지 무척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기쁘게 아침을 맞았다. 아침 식사 후 그동안의 조 점수 합산에 들어갔다. 내가 속한 조가 1등이라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동안 열심히 참여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상품을 받고 파송식을 했다. 중등부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장



로님들, 전도사님들께서 우리의 머리에 향유를 직접 발라 주시고 십자가 목걸이와 말씀 카드를 주시며 기도해주셨다. 목사님의 설교대로 악마의 시험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수련회 마지막 일정까지 마쳤다.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크나큰 은혜를 받았고,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앞으로 수련회의 이 감동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I'm free! **만남**



채예주  
중등2부 학생회장



##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고3이 된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고등부 마지막 겨울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입시와 취업 등 고민이 많은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대했습니다.

개회 예배 때 노대웅 목사님께서 이번 겨울수련회 주제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3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주님께서 항상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그동안 제가 너무나도 당연

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만나려고 하시는 주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제가 거절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학생회 친구들과 많은 시간 준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매우 기대했던 저녁 집회 시간, 목사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시간, 하나님





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무엇을 해주신지, 정말 저와 함께 계신지 의문을 품었던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이셨음을 깨닫고 죄송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장소는 교회여서 첫째 날은 일찍이 집에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빨리 끝나 아쉬웠지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둘째 날이 기대되었습니다.

둘째 날 일정은 목사님의 성지순례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과 6·25전쟁으로 희생하신 선조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후에 방문할 성지순례 장소들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의 이후 종로, 마포, 신촌, 서대문 지역 중 조별로 방문할 성지순례 장소를 정했습니다. 우리 조는 종로 지역으로 가게 되어, 승동교회, 태화복지재단, 탑골공원, 연동교회, 우당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우당기념관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위인전을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의 조상은 대대로 명문가여서 엄청난 명성과 현재 기준으로 600억원 상당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이회영 선생님은 그 많은 재산을 독립운동에 사용하셨습니다. 큰 재산을 거리낌 없이 독립운동에 사용하셨다는 것이 존경스럽고 그 결과로 현재 대한민국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성지순례를 마친 후 저녁 집회 때 목사님께서서는 우

리에게 이렇게 편안하고 고통 없이 살게 해주신 선조들께 감사드려야 하며, 이제는 우리가 고통받으신 선조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조그만 불편에도 짜증 부리며 참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죄송하여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주님과 대화의 시작되었습니다. 제게 당면한 목표는 입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뜻과 미래를 주시더라도 기뻐하고 어떠한 고통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행할 것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고, 알 수 없었던 주님의 뜻을 알고 나니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수련회 마지막 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푸시는 사랑을 망각하여 또다시 후회할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폐회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 또한 남에게 베풀며 주님의 뜻을 전해야겠다고 믿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음이 은혜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주님을 뵈고자 한 간절한 마음으로 수련회 매 시간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활동에 참여했던 자신이 뿌듯했고, 이런 제게 다가와 주신 주님께 감사했던 수련회였습니다. **만남**



김민우  
고등부 3학년

## 사랑,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대학부 수련회가 'SWITCH ON: 시작'이라는 주제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50주년 기념관 B2 드림홀에서 있었다. 주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히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대학부 벗님 개개인의 입술에서 받아내고 싶으신 감사와 찬양을 수련회를 통해 성취하길 원하셨고, 그렇게 일하셨다. 사전 회의 중, '예수님만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함을 알리셨고 크게 3가지의 부분 '삶의 시작·가정의 시작·복음의 시작'이라는 소주제를 정하게 하셨다. 삶의 시작에 이상억 교수님(장신대 목회상담학), 가정의 시작에 신형섭 교수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복음의 시작에 이창호 교수님(장신대 기독교와 문화)을 모실 수 있도록 하시어 수련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셨다.

수련회 준비 중에 만나 뵈 교수님들은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된 말씀을 하셨다.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말'이다. 그러나 '아는 말'과 '경험된 고백'은 다르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벗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나타내어주시고 △그 경험이 삶에서 말씀으로 풀어져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경험과 고백을 갖도록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이 말씀들이 모든 벗님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마다 학생회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셨다. 스케줄 중에 특강과 조별 나눔을 연결하셔서 영적인 흐름이 이어지



도록 하셨고, 실내 활동과 야외 활동으로 벗님들이 마음을 열도록 인도하셨다. 그 결과, 서로의 삶에서 깊은 나눔의 우물을 길어내셨고, 서로의 가정에 대해 나누게 하셔서 청년 세대가 앞으로 세울 가정의 청사진을 보게끔 일하셨다.

여는 예배는 백성우 목사님께서 ‘시작의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벗님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설교하셨다. 또 삶의 시작에서는 이상억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 말씀을 풀어주시며 벗님들의 청년의 때에 말씀의 필요성과 말씀 읽는 방법을 제시하셨다. 그리고 가정의 시작에서는 신형섭 교수님께서 ‘연령대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영향들’을 설명하시면서 벗님들이 어떤 가정에 속한 상태인지를 되짚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야 할 가정의 바른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하셨다.

또 복음의 시작에서는 이창호 교수님께서 ‘기도’, ‘십자가’, ‘성령’이라는 세 차례의 저녁 집회 주제를 통해 복음의 기초적 내용을 쉽게 풀어 설교하셨다. 특히 학생들을 무대로 나오도록 하여 설명하시고, 흰옷과 물병 등 실물 자료를 이용한 복음의 설명에서는 벗님들의 경탄이 나오기도 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현재의 나에게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설교 말씀으로 풀어졌다. 설교 중에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공동체, 이 세대를 감당하는 최고의 위로자 집단”이라고 대학부의 새 비전을 제시하셨다. 한 벗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쉽게 설명해주셔서 와 닿았고 그게 너무 감사하

다”라고 했으며, 또 다른 벗님은 “지금까지는 나의 연합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서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기도회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가 부어지는 경험의 시간이었다. 각자의 죄를 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각 벗님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한 명씩 일어나는 모습,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진정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서 고백을 받아내시는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또 한 명씩 앉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외침 소리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통하여 대학부와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도록 하셨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은 렘 33:2~3이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에게 전심으로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에 대해 응답하겠으며 우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련회 동안 대학부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만남**



정재은  
대학부 44기  
105대 학생회 부회장

## 끊어지지 않는 세 겹 중보기도의 힘

### - 영락의료과학고 취업 맞춤형 방과후 교육현장



최근 몇 년간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이사장 김운성 목사)는 여타의 특성화고등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고, 어렵사리 입학한 학생 중에는 학업과 생활에 의욕을 상실한 학생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시간은 물론이고 활동시간에도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희 교사들은 매일 아침,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학급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업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수업을 개설하여 국·영·수 과목을 기초부터 다질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중 열의를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공무원 및 대기업 준비반 등 취업 맞춤형 방과후수업반을 개설하여 목표를 품고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방과 후에도 자기주도학습실을 운영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전공을 살려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저희 모든 교사는 학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사진이 적힌 기도 카드를 놓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특히 취업진로부 교사들은 퇴근 후와 주말에도 다양한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 올해 3학년 학생들은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베스티안서울병원, JC빛소망안과 등 병원과 육군 부사관 및 해병대 부사관, 병역특례업체(일정 기간 회사에 복무하여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인 바이오넷, 메디아나, 아이센스 등의 의료기기 개발 업체에 70여 명이 취업하는 기쁨을 토했습니다(2020.2.4 기준). 이는 취업희망자 대비 취업을 100%에 달하는 성과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한 황찬영 군(의료IT과 졸)은 주일예배는 물론 매주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예배에도 빠지지 않는 신실한 학생입니다. 3년 내내 학급 신앙부장을 맡아 매일 아침 학급 경건회를 인도하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 아니라, 여름방학 때마다 학교 전통인 농촌봉사대에 참가하여 봉사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31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2019년 12월



KOSIS 국가통계포털)임에도 중학교 내신 78%라는 다소 낮은 성적으로 입학한 찬영 군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당히 공사에 합격한 것은 실로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된 이 학생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느 학교 졸업생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고 훌륭하고 멋지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간절히 축복하며 중보하는 영락교회의 성도들과 학원선교팀의 사랑, 그리고 영락의 선생님들

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취업률 100% 달성에 이어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옆에 앉은 선생님들과 손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주셨구나. 끊어지지 않는 세 겹 중보 기도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끼며, 아이들 각자가 가장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2020년,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은 믿음의 큰 용사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과 학원선교팀의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길러진 인재가 필요하신 분이 나 저희 학생들을 위한 취업처를 소개해 주실 분은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취업진로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 이메일 : [jeeyoung@sen.go.kr](mailto:jeeyoung@sen.go.kr)

• 전 화 : 02)884-1004

김지영 교사  
영락의료과학고 취업진로부장



## 영락교회에 새로 왔습니다!

2020년 신임 부목사 인터뷰

### 탁현수 목사

안녕하세요? 2020년에 용인·화성교구, 제자 양육훈련부(소그룹), 자원봉사부, 호산나찬양대를 섬길 탁현수 목사입니다. 제 가족은 아내 안혜민 사모와 아직은 말썽꾸러기 연년생인 두 아들, 준 이렇게 넷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일반대학을 포기하고 신학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신학교 학부 입학 면접을 시작으로 목사 안수를 위한 노회 면접에 이르기까지 “자네, 왜 목사가 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제 답변은 항상 “저를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저도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끊임없이 경험하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가득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목사의 소명을 능숙하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관계할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목회자도 건강한 직분자도 건강한 사회구성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만나게 해주실 분들과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가득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부임하여 느낀 영락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지에 깊이 뿌리내려 혼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흔들림 없는 아름드리나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에 용인·화성 교구의 성도들을 비롯해 저와 함께하실 모든 분이 영락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사역을 통해 신앙이 더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전히 붙잡고 살아온 말씀으로 저의 소개를 갈음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7)

## 김진우 목사

안양·수원교구, 친교부, 갈보리찬양대, 4부 예배를 섬기는 김진우 목사입니다. 제 가족은 아내 강은실 사모와 두 아들 하준, 하영과 막내딸 하나 이렇게 다섯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목사님들의 모습이 너무 바쁘고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 목회자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동행하면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를 인도하시며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시기에,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더없이 기쁘며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영락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여전히 성장하고 부흥하는 영락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 꿈같은 일입니다. 새해 첫날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기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기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찬양은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함으로 예수님 닮아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 이후림 목사

인천교구, 주중사역, 4남/4녀를 섬기는 이후림 목사입니다. 제 가족은 아내 정지혜 사모와 9살 태선(太善)이와 태어난 지 9개월이 된 로아(勞雅) 이렇게 넷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산하의 미션스쿨인 대광중·고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되어, 대학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 신앙훈련을 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즐기면서 주님을 위한 풀타임 사역자로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대광고 졸업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2020년 목회자로 영락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큰 감격이 있고, 영락교회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부목사 사역 중에 깨달은 목회적 사명 중 하나인 我生教會死 我死教會生(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풀이하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섬기든지’ ‘어느 직분을 감당하든지’ ‘어느 부서를 담당하든지’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살고, 내가 죽는다’라는 각오만 잊지 않는다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리라는 깨달음입니다. 관련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가 있습니다.

영락교회 부임 후 첫 소감은 영락교회는 뜨거운 기도의 열정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남다른 교회라고 느꼈습니다. 부임 첫날, 신년기도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이 떠들썩하게 “주여” 부르짖던 장면이 많이 기억납니다.

바람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인천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이고, 찬송가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만남**

## 제15기 영락어머니학교

#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 일 시 : 2020년 3월 21일~4월 18일(매주 토요일/5주간) 오후 2시 ~ 6시  
 • 제3주 문화나들이 오전 10시 ~ 오후 3시(선착순 30명)
- 장 소 : 봉사관 405호
- 회 비 : 5만원(교재, 영화관람, 간식 등 제공)  
 • 우리은행 1005-201-610374(예금주 : 영락교회 상담부)
- 문 의 : 상담부 봉사관 303호 ☎2280-0171) 팀장 ☎010-4933-3049
- 강의내용 :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3/21	3/28	4/4	4/11	4/18
여성상의 회복	어머니로서의 영향력	문화나들이	어머니의 자녀양육	어머니의 영성



##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

선행 영향력. 요즘 미디어에서 자주 보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겠다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으로 시작된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스며드는 것 같아 은혜롭습니다. 강남교구 12구역의 구역장을 7년 정도 맡으면서 만난 구역 식구들은 저에게 선행 영향을 주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세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돌아가신 임은실 권사님은 1주일에 한 번 구역예배 드리기를 실천했습니다. 임 권사님은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셨으며 마음가짐도 소홀히 하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구역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서러울 정도로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셨고, 구역 식구들에게도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곁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역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정기창 권사님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돼 준 정 권사님은 일상생활에 힘든 일이 생기면 본인 일처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 해주셨습니다. 힘든 일을 극복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그 안타까웠던 마음보다 몇 배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구역의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아 구역장의 본이 돼 주셨



정미숙 권사  
강남교구 12구역장



주님이 주시는 복음과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구역 식구들과 나누는 것이  
좋은 구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습니다. 정 권사님께 구역장 자리를 물려받은 후로 정 권사님처럼 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 부끄러울 뿐입니다. 모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눠준 정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끝으로 황재연 집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황 집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던 영락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어 지방에서 올라와 저희 구역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8형제의 맏형으로 대가족 중에 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교구 행사와 예배에 꼭 참석하여 섬김의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을 대하시는 황 집사님을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황 집사님의 가족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구역장으로 섬김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구역 식구들이 있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구역예배를 자주 드리지 못하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직장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구역예배 시간을 정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기도 하다 보니 예배 횟수가 줄어들게 됐습니

다. 구역예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화로 주님의 인사를 나누고, 기도드리면서 『만남』을 돌리지만, 신앙의 헛헛함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3월의 구역장 대회를 시작으로 4월과 5월, 9월과 11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에 있을 구역 모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요 권찰예배를 대신해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해 구역예배의 활성화를 이루어 보려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과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구역 식구들과 나누는 것이 좋은 구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향기와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소명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역 식구를 잘 섬겨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며 신앙 공동체인 구역 식구들을 한 가족 공동체로 묶는 구역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3~25) **만남**



## 제자가 되고 제자를 양육하는 곳, 세우미반

### 태동

세우미반은 제자로 바로 섬과 동시에 제자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 교회에서 세우미반은 지난 2007년 청년부 새가족반이었던 ‘푸른초장’을 중심으로 힘차게 시작했다. 한때 세우미 리더가 28명까지 늘었고 푸른초장 새가족까지 포함 모두 60~70명이 모였지만, 리더가 제자로 세워지지 못한 탓에 재생산의 맥이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지금은 전도훈련학교 스태프를 중심으로 한 반, 주일 모임 두 반, 도공동 모임 두 반, 대치동 모임 두 반, 교회 주변 모임 한 반 등 영락 성도들 중에서도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약 36명이 훈련 중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사역이 정식 제직부서가 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2019년 제자양육훈련부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7월 7일 50주년기념관 6층 제자양육훈련부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세우미반의 본격적인 제자훈련이 시작됐다.

세우미반은 ‘예수님을 닮고 닮아가게 하자’를 모토로 삼고 있다. 제자양육훈련부 산하 소그룹전담부 안에 또 제자반이라는 이름을 두는 것은 혼돈의 위험이 있어 세우미반이라 이름 지었다. 이곳에서 훈련받는 모두를 제자라고 부르고 싶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듣고 배우며 훈련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그자신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이를 제자로 세우는 사람이다.



김재울 안수집사  
성동·광진교구  
소그룹전담부 세우미반 리더

## 넘치는 은혜

### ▶ 사례1: 강현명 권사

지난 수년간 교회 안팎에서 영락 교우들과 소그룹 모임을 해오며 오랜 기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세밀한 인도하심을 간구해 왔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은혜가 늘 풍성했으나, 공동체 안에서 목표와 방향성을 놓고 갈등함을 느끼던 차에 2019년부터 소그룹전담부의 말씀 지도와 기도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고 전도훈련과 소그룹 성경공부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 김권희·김진희 집사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간절히 소망했던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영락의 성도들 모두가 믿음과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 ▶ 사례2: 김재을 안수집사

필자의 거래처 대표이기도 한 K집사님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올곧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분이다. 필자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K집사님께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집사님은 회개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그분은 만날 때마다 성경과 교리, 교회에 관하여 질문 공세를 던졌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도 질문이 많았다. 그때마다 그분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펴서 읽으며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시도록 권유한 뒤 1년쯤 지나자 K집사님은 자신 스스로가 고객들에게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K집사님의 경우를 보면서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8:31)라는 말씀처럼 오직 말씀을 통해

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

## 이때를 위한 세우미

제자사역은 정기적으로 대면하여 1:1로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믿는 이에게는 함께 예배와 기도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도우며, 묵상의 축복을 함께하기를 갖 태어난 아이에게 하듯이 세밀하게 인도해야 한다. 새신자에게 있어 세우미는 영적 부모와 같아서 새신자는 세우미에게 섬김이 있는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아이의 성장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새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세우미는 새신자의 영적 성장을 위해 돌보고 섬겨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바로 아는 가운데 예수님과 긴밀하게 동행해야 한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새신자의 영적 부모로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도다” (애 4:3~4)라고 말씀하셨다. 때에 맞는 말씀을(눅 12:42, 잠 25:11) 나누어주는 준비된 세우미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연히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당신의 제자가 되라고 하신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시대의 요청은 무엇인가? 올해 우리 영락교회 신앙표어에 부응하는 ‘이때를 위한 세우미’, 즉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 아닐까. **만날**



## 틀리게 부르는 찬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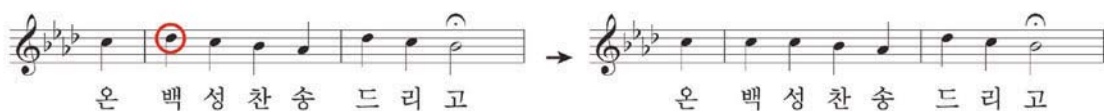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만남』에 ‘찬송을 부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찬송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중 두 번째가 ‘찬송을 정확하게 부르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의외로 틀리게 부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1995년부터 4년간 장로회신학대학에 출강하며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다. 지휘법이란 과목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는데, 각자 다니는 교회에서 틀리게 찬송하

는 사례를 조사하여 학기 말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받은 자료를 여러 학기 수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틀리게 부르는 찬송가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틀리게 부르는 찬송가가 수십 개나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20년 넘은 일이라 지금은 그 리포트들을 소장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많이 틀리게 부르는 찬송가 10개를 찾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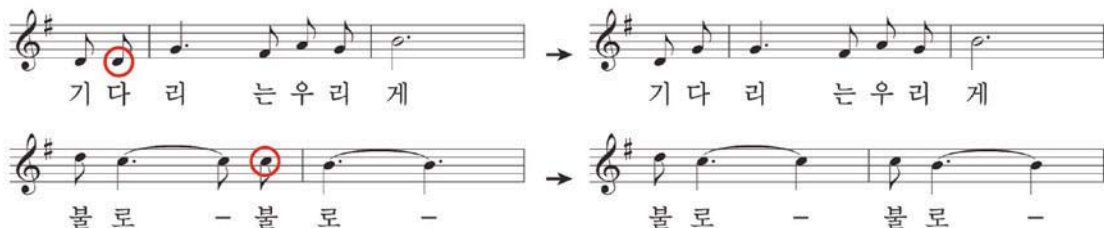
### 틀리게 노래하는 부분

### 원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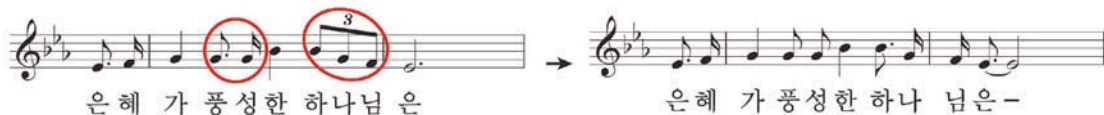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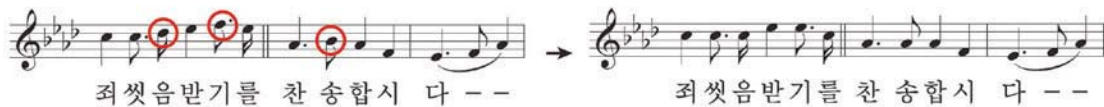
####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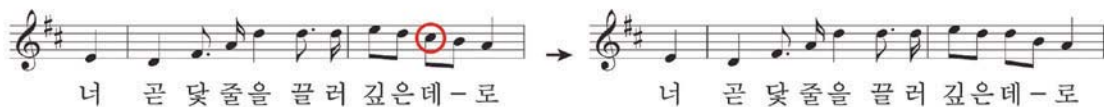
####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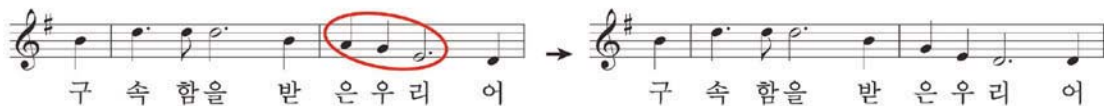
##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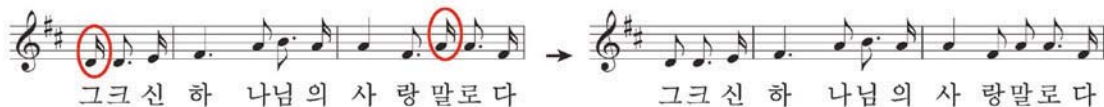
##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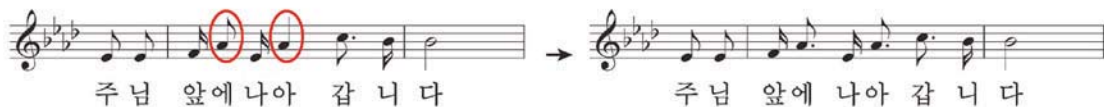
##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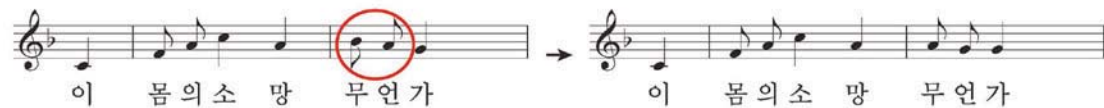
##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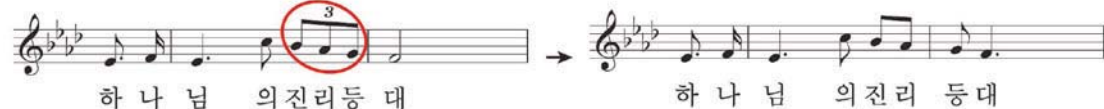
##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틀리게 부르는 원인은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보았다(괄호 안은 틀리게 부르는 부분).



### 1. 부흥회에서 손뼉을 치고 암송하며 부르다 틀리게 된 사례

먹보다도 더 검은(믿고 뛰어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성령이 오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안보함이어)

### 2. 멜로디를 쉽게 부르려는 경향 사례

내 주의 보혈은(정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나의 생명 드리니(생-명)  
주의 피로 이룬 샘물(찬송하세 주의 보혈), 예수 앞에  
나오면(우리 주만 믿으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후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 3. 붓점이나 싱크페이션<sup>1</sup>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찬송하세), 어린 양들이  
두려워 말아라(어린 양들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주 예수의 구원의), 세상 모두 사랑 없어(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이 천지간 만물들이  
(만물들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시냇가에 살겠네)

### 4. 8분음표를 셋잇단음표로 하는 사례

하나님의 진리등대(하나님의 진리등대)

### 5.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찬송 사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그 누가 대답을 할까),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검은 구름 없으니)

이 밖에 중요한 원인으로는, 선창하는 목사님이 틀리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 목사님들이 틀리면 교인들이 틀리게 찬송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 영락교회는 그래도 찬송을 제대로 부르는 편이다. 목사님들도 거의 정확하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찬송 72장 '만왕의 앞에 나오라'를 부른 적이 있다. 그날 예배 사회를 맡으신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긴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어렵고 생소한 찬송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 우리나라 교회의 특성이 있다. 서구의 기독교 국가 중 목사님이 찬송을 이끌고 나가는 나라는 없다.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은 오르간이 찬송을 이끌어간다. 여기에 찬양대가 찬송하는 것을 돕고 있다.

우리가 부르는 21세기 찬송가에는 새로운 찬송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작곡의 한국 찬송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모르는 찬송은 틀리지 않는다. 이유는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찬송들도 불리게 될 터인데, 우리 귀와 머리에 틀리게 입력이 되면 계속 틀리게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중한 우리의 임무다. **만남**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1 한 마디 안에서 센박과 여린박의 규칙성이 뒤바뀌는 현상.

## 90년생이 온다



임홍택 지음 / 웨일북 펴냄 / 336쪽

이 책은 최근 9급 공무원 시험에 전념하고 있는 1990년대에 출생한 20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 세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들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한 책이다. 저자(임홍택)는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면서 90년대생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2016년 5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취업 준비자의 40%가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자라고 한다(65만 2천 명 중 25만 7천 명). 그런데 이들 중 공무원에 합격하

는 사람은 1.8%에 불과하며 나머지 98.2%는 재수, 삼수의 길을 걷는다. 1990년대에 출생한 청년(2014년 당시 16~25세)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1위가 공무원(29%)이고 다음이 대기업(22%), 공기업(15%)이라는 통계조사도 있다. 시간이 지나도 2위가 건물주와 임대업자로 변할 뿐, 1위 공무원은 변함이 없다. 강남 엄마들 로망은 자녀가 SKY대 입학하여 공무원 취업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다.

이렇듯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 것은 우리 사회가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직업 안정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거 ‘굵고 짧게’에서 ‘가늘고 길게’를 직장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덕에 생애 소득이 대기업 직원보다 3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더 많다고 한다. 이제 공무원은 ‘가늘고 길게’가 아니라 ‘굵고 길게’ 가는 직업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시대마다 그 시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X세대’가 있다. 1990년대 중반에 20대였던 신세대는 1970년대생으로, 맞벌이 부부에 의해 키워진 세대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이들은 개성을 중시하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심은 약하다. 1980년대 이후 출생자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의 부모 세대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인구층이 가장 두터운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80년대 출생자(젊은 밀레니얼)와 90년대 출생자(젊은 밀레니얼)를 구별하기도 하는데, 구별의 기준이 되

는 것은 빠르게 발전한 IT 기술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공통 점이 있는데 바로 낮은 출산율이다. 80년대생은 형제자매가 둘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90년대생은 외동인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를 그대로 보여준다.

### 90년대생의 첫 번째 특징 : 간단

90년대생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간단함’인데, 그들의 언어습관에서 줄임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줄임말은 70년대생이 10대 청소년기에 ‘천재(천하에 재수 없는 놈)’ ‘바보(바다의 보배)’ 같은 말을 썼다면 80년대생은 ‘방가(반가워요)’ ‘자철(지하철)’ 정도였다. 90년대생들의 줄임말은 그 정도가 아니다. PC 통신과 채팅 문화가 인터넷과 게임문화로 확대·전승되어 ‘득템’ ‘아싸(아웃사이다)’ ‘어사(어색한 사이)’ 외에도 ‘스벅(스타벅스)’ ‘빠바(빠리바게트)’ ‘미피(미스터피자)’ 등 기업의 고유 브랜드도 줄여 부른다. 이들 줄임말이 생성되고 확장되는 방식에는 첫째, ‘축약형’으로 ‘케바케(Case by Case)’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둘째, ‘초성형’으로 아예 자음만 쓴다. ‘ㄷㅋ(축하)’ ‘ㅇㅈ(인정)’ ‘ㅇㅋ(오케이)’ 등이다. 셋째, ‘합성형’으로 ‘밥블레스유’ ‘나일리지’ 등이 있고, 넷째, 오타형으로 ‘오나전(완전)’ ‘고나리(관리)’ 등이 있다.

새로운 세대는 문자를 빨리 쓰는 능력보다는 이모티콘이나 짧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더욱더 인정한다. 책을 읽는 것도 ‘더 짧고 간단하게’를 지향하다 보니 3분 안팎에 읽을 수 있는 2,000자 분량의 초 단편소설도 등장하게 되었다.

### 90년대생의 두 번째 특징 : 재미

80년대생 이전 세대들이 ‘삶의 목적’을 추구했다면, 90년대생은 ‘삶의 유희’를 추구한다. ‘병맛’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이는 어떤 대상이 ‘맥락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을 뜻하며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도 청년층에 인기 있는 것은 완전무결함만 살아남는 현실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을 패배자라고 인식하는 청년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드리브(ad lib)에서 변형된 은어인 ‘드립’은 ‘특정한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발언’이라는 의미로 헛소리나 실언, 말말이라는 뜻까지도 포함한다. 일종의 개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드립력은 상황에 어울리는 짧은 말과 글로 촌철살인의 웃음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인터넷 기반 개방형 백과사전의 성격에서도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구성되는 ‘위키피디아’가 기본 정보 전달에 충실한 데 반해, 한국의 ‘나무위키’는 개인적 견해를 기본 정보에 덕지덕지 붙여 이 공간을 정보의 공간인 동시에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유희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90년대생에게 ‘식사’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즐거울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앞에 두고 먹기보다 먼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인 자아실현의 충족을 위해 힘쓰는 ‘유희 정신’에 기울어져 있다.

### 90년대생의 세 번째 특징 : 정직

90년대생들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정직’을 요구한다. 이때 정직의 의미는 ‘Honest(어니스트: 성품이 정직, 솔직, 순수함)’보다는 ‘Integrity(인테그리티: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에 가깝다. 이 기준으로 보면 혈연, 학연, 지연은 일종의 적폐다. 기업의 공개채용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서 공무원 시험을 선호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불신으로 ‘정시 100% 반영’을 주장하는 이유다. 90년대생은 정직함과 신뢰를 사회적으로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거래에서의 ‘호갱노노’, 화장품 제품 정보의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와 같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창조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 있고 열린 자세로 그들과 적극적으로 만날 때에만, 젊은  
세대에 대한 모든 편향된 평가와 논의들이 사라질 것이다. ....

이와 함께 젊은 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닌, 하나  
의 사회적 현실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론은 그렇  
게 세대 간의 포용력 있는 공감대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

- 「90년생이 온다」 중에서



은 앱이 인기를 얻고 있다. 90년대생들은 자신이 구직자  
이면서도 면접한 회사를 평가하고, 면접시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기업들도 이들 요구에 부응해 더 좋은 인  
재를 채용하고자 한다.

### 90년대생이 ‘직원’과 ‘소비자’가 되었을 때

세계 유수 기업의 리더들은 젊은 직원(세대)들에게 문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상사)에게 있다고 본다. 젊  
은 직원들은 기업문화, 상사(꾼대)의 태도에 실망하며 급  
여보다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 회사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신의 미래나 팀, 또는 프로젝트에 충성  
심을 갖는다. 퇴근 시간과 휴가, 보고서 작성, 회의 등의 불  
합리한 운영에 반발하고, 회사는 이들의 삶의 조화를 위해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한다. 강한 통제방식이 통하  
지 않는 이들은 ‘참견’이 아닌 ‘참여’를 통해 조직이 필요로  
여기는 본인이기를 원한다.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무기로 스마트 컨슈  
머를 지향한다. 멤버십 포인트, 해외직구, 가정편의식 등  
을 활용한다. 고객센터보다는 비대면 상담을 선호하고, 인  
터넷을 통해 접속의 시대를 선도한다. 이들은 호갱 기업을

용납하지 않고, 정직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한다. 이들  
젊은 고객을 위해 기업은 초성체 제품명(ㅇㄱㄹㅇㅂㅂㅂ  
ㄱ) 상품을 출시하고 무인매장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은  
변하는 ‘젊은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해 전통적인 조사방  
법보다 ‘관찰조사’를 통해 고객에 가까이 가고자 한다.

위에 소개한대로, 이 책은 90년대생의 사고와 삶을 간접  
적으로 경험하게 만든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이  
들 신세대를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고민  
하게 된다. 이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한편 변  
할 수 없는 신앙의 진수를 전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선배인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남**



김종태 장로  
강남교구

##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 그림으로 하나님 자랑



아무 공로 없는데도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하며 부르기 30여 년.

어느 날 문득 찬양대원을 은퇴하면 그 후엔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나?

미리 아뢰었다. 그동안 내 안에 꿈틀대고 있던 그림에 대한 갈망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에 힘입어, 찬송가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기로 했다.

찬송가의 내용이란 것이, 구체적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과는 다르게 거의 추상적이어서 덜컥 겁이 났다. 틈만 나면 한글로, 영어로 검색을 해봐도 딱히 '찬송가 그림'이라는 명제를 찾지 못했다.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미술서적과 아트미션포럼 등 강의에서도 배우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고, 애 통하며 교회에 있는 시간을 빼고는 붓을 들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스스로 터득해 나가며 발전하는 나 자신이 기뻐해서 오늘도 밤낮으로 그리고 있다. 찬양의 신비도 직접 체험했듯이 찬송가 그림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체험

하기 원한다.

처음에는 찬송가에서 가장 구체적인 백합화와 장미꽃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도 새로운 그림소재들을 안내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찬송 중에도 그림으로 연결이 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용들이 떠오른다.

그러야 할 내용들이 줄을 서 있으니 시간이 많이 기다려주길 소망한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그림을 원 없이 그릴 수 있기를 원하며, 그리는 내내 감사 찬송이 나의 입술에 살아있어 아름답게 표현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모세를 80세부터 사용해 주신 것같이, 지금부터 내 안의 모든 스위치를 켜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만남**

유안미 권사\_강동·송파교구



## 새가족 환영

welcome

등록일(2019년 12월 29일~2020년 2월 2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동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2019.12.29	박남숙	03	033
2020.01.01	서신혜	04	098
	이영호	04	098
	허지혜	04	098
	김윤기	04	098
	김주리	04	098
	이요한	04	098
	최재령	04	098
	김 선	04	098
2020.01.05	서운갑	05	004
	김수일	07	056
	최상순	07	056
	문순임	03	024
	김옥현	02	054
	한애숙	05	040
	김영식	15	014
	강미숙	15	014
	박연선	13	025
2020.01.12	정유림	13	009
	하영란	12	031
	주기영	08	047
	김용덕	05	036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2020.01.12	박금서	08	047
	김화숙	17	005
	이정길	02	050
	오슬아	01	047
	조진서	09	000
	차이천	06	016
	강이현	06	030
	강시현	06	030
	권이담	10	040
	박선유	13	042
	황지연	14	047
2020.01.14	함국룡	01	044
2020.01.16	예하온	04	098
2020.01.19	김선아	06	000
	변경섭	15	043
	전예원	15	043
2020.01.26	권성범	16	041
	양은지	16	041
2020.02.02	박영숙	02	068
	이흥진	16	000
	안순예	18	040
	김상협	05	044

##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지닌 올바른 리더” 2020 제직부흥회



2020년도 제직부흥회가 지난 2월 9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렸다. 제직수련회라는 명칭이 금년부터 제직부흥회로 바뀌어 열린 이번 부흥회는 우리 교회 제직들의 신앙 확장과 새로운 다짐을 위한 시간

으로 준비되었다.

1차 부흥회 강사로 초빙된 손신철 목사(인천제일교회)는 ‘대장부’(열상2: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직들은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지닌 올바른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6일에 진행된 2차 부흥회에서는 이춘수 원로 목사(평택동산교회)가 ‘작은 것부터 큰 것을 이루라’(속 4:6~10)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와중에도 제직들은 본당의 교구별 지정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2020년도 향존직 선거…장로 8명, 안수집사 20명 피택

지난 1월 12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치러진 2020년도 향존직 선거결과 장로 8명과 안수집사 20명이 피택되었다(피택자 명단은 하단 상자 참조).

향존직 선거 종료 직후인 1월 29일 2부 수요기도회 후에 향존직 피택자 감사기도회가 봉사관 지하예배실에서 있었다. 피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설명회를 겸해 드려진 감사기도회는 선거집행위원장 이영철 장로의 인도로 시작되어 김운성 목사가 교회 중직자의 소명과 자세를 중심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박재현 목사(목회행정)가 피택자 교육 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향존직 선거로 선출된 장로와 안수집사 피택자들은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거친 후 교회창립 75주년 기념주일(12월 6일)에 있을 임직식에서 장로 장립과 집사 안수를 받게 된다.

### 장로 피택자

차영균 이창선 최성준 장세완 임우섭 안태운 양성환 강동호

### 안수집사 피택자

임종환 홍석훈 최은오 김혁태 황문선 김창섭 김승덕 김병기 민병준 이영화 이성두 김수홍 이동훈 김경호 소남호 송정석 오은택 최성문 박경수 김재연

취재 장덕진 편집위원

## “여성이어, 거룩한 사명 감당하자” 여전도회 헌신예배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지난 1월 19일 찬양 예배 시간에 드러졌다.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은 1~4여전도회 증경회장단 및 임원, 실행위원들이 본당 1층 중앙 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예배는 구성숙 권사(1여회장)의 사회로 강신재 권사(2여회장)가 기도, 박유리 집사(4여회장)가 성경봉독, 현성경 권사(3여회장)가 봉헌기도를 맡았다.



헌신예배 강사로 초빙된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원로)는 ‘여성이어 깎지어다 일어날지어다’(사 5:1~1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려울 때마다 여성이 영적으로 깨어나 교회와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다”면서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여전도회 헌신예배에서 봉헌된 헌금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선교사역에 쓰일 예정이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생명의 열매 맺는 교사 되자” 교육부 신년교사기도회



교육부(부장 이영철 장로)는 2월 1일(토) 오후 3시 50주 년기념관 드림홀에서 교육부 산하 16개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사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이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는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닮

는 교사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자”고 교사들을 격려했다. 기도회 강사로 초청된 김태섭 교수(장신대 신약학)는 ‘사랑이 제일이라’(고전 13:13)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사랑이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교사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채워 생명의 언어, 능력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강을 마치고는 백성우 교육전담목사의 인도로 2020년 교육부 교육목표 및 사역방향에 대한 설명과 교육부 사역 비전을 주제로 참석한 교사들의 합심 기도 이어졌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의료선교부, M국서 의료선교봉사 펼쳐

의료선교부(부장 박일환 장로)는 지난 1월 23일(목)부터 28일(화)까지 본 교회 파송 황관중 선교사 사역지인 동남아 M국에서 단기 의료선교봉사를 진행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르자’(출34:4)는 표어 아래 진행된 이번 의료선교봉사에는 단장 박도준 안수집사(의료선교부 차장)를 비롯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평신도 비의료인 봉사자를 포함 총 32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원들은 M국 선교지 현지에서 의료사역, 아동·청소년사역, 기도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했다. 우선 의료사역을 통해 998명에게 진료를 진행함(사진)으로써 국경을 넘은 사랑의 인술을 펼쳤고, 총 3,279건이 진행된 아동사역은 풍선



과 팝콘, 티셔츠 배포 및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지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제공 의료선교부

## ‘구역장을 위한 축복과 격려’… 제1회 구역장대회 27일 개최

목양부(부장 김재완 장로)는 3월 27일(금) 10시 30분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제1회 구역장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 교회는 18개 교구 1,124개 구역에서 천 백여 명의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을 돌보며 목양 사역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번엔 처음 개최되는 구역장대회는 이러한 구역장들의 헌신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길 함께 소망하면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한 축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구역장을 위한 특강, 찬양과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되며 구역장들을 위한 작은 선물과 식탁 교제도 준비될 예정이다. 주님께서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던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며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구역장대회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구역장들을 위로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헌신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격려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제공 목양부

## 김운성 목사, 한국미디어선교회 이사장에 선임

김운성 목사가 한국 교회 연합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선교회(이하 미디어선교회) 제3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지난 1982년 11월 '한국비디오선교회'로 출범한 미디어선교회는 출범 초기 비디오 영상물 제작을 통한 선교사역을 펼쳤으며, 영상선교 시대를 지나 디지털선교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 최초로 성경 66권 인터넷 강해를 제작하는 등 시대적 환경에 부응한 미디어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다. 창립 당시 한경직 목사가 초대 총재를, 최창근 장로가 후원회

장을 맡아 미디어선교회의 출범과 운영을 돕기도 했다.

김운성 목사는 취임 전 교계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초대 총재였던 한경직 목사의 선교 정신을 좇아 ‘스마트선교사’ 100만 양성운동을 전개하며, 저명한 신학자들의 성서 강의를 7개 국어로 번역, 보급함으로써 2만 7천여 명의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취재 장덕진 편집위원

## 2020년 겨울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 열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2020년 겨울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이 지난 2월 2일(주일)부터 7일(금)까지 영락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번 영성수련에서 영성 강의를 맡은 백상훈 교수(한일장신대)는 프란체스코의 영성을 ‘가난의 기쁨과 공감적 목회’라는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었고, 성서 강의를 한 김선종 교수(호남신대)는 레위기기를 통해 ‘오늘날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었다. 목회 강사로 참여한 서정오 목사(동송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목회자는 더욱 깊은 침묵과 고독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 드러진 예배 시간에는 이철신 원로목사가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말씀으로, 김운성 위임목사는 ‘내 영혼이 힘을 얻어’라는 말씀으로 참석자들의 영적 회복과 충전을 도왔다.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은 예장 총회 국내선교부의 위탁을 받아 총회 ‘기도학교’를 겸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5월 11일~13일에는 ‘2020년 봄 포이메네스 3일 사모 영성수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공 영락수련원



##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늘 감사”...은퇴제직상조회 25돌 예배



은퇴제직상조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1월 29일 수요일부 기도회 직후 벨엘기도실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예배 및 제2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회원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회장 김영배(B) 장로

의 인도로 드려진 기념예배는 김태규 장로의 기도, 1남선교회 중창단의 특송에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가 ‘우리가 준비할 향품’(눅 24:1~6)’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목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귀중한 모임이 되도록 남은 여생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예배를 마치고 직전 회장 김충손 장로의 사회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사업보고와 임원인준, 안건토의 등이 이뤄졌다. 은퇴제직상조회는 2월 현재 961명의 회원이 가입됐으며 작년 12월에 은퇴한 제직들은 금년 6월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권철 안수집사

### 김영배 원로장로 별세

김영배 원로장로가 지난 1월 30일(목)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1932년 경기도에서 출생한 고인은 196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말까지 30여 년간 보성여중·고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교육행정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1968년 집사 안수, 1976년 12월 제11회 장로로 장립되어 2002년까지 시무장로로 섬겼으며, 2003년 1월에는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당회원으로 섬기는 동안 당회 운영위원장 및 인사위원장, 서무부장, 심방부장, 평신도부장, 홍보출판부장, 고등부장, 보성학원 부이사장, 영락학원 이사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13차례나 당회

서기로 봉사하며 헌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 이밖에도 서울노회 회계, 대방사회복지관 관장 등을 맡아 활발한 교계와

사회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고인의 장례예식은 2월 3일(월)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김운성 목사 집례로 교회장으로 엄수됐으며, 같은 날 장지인 영락동산에서 최승도 목사 집례로 하관예식이 드려졌다. 고인은 부인 김진옥 은퇴권사와의 사이에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 3월 목회력

1일(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6일(금)	연합 및 금요권찰공부 상반기 개강
7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8일(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제직회
15일(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새가족환영회
20일(금)	심방준비회
22일(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다음 세대 기도회, 사회봉사주일
27일(금)	구역장 대회
29일(주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 토요음악회 - 오후 6시 선교관

21일	갈보리찬양대 작은음악회
28일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브니엘 정기연주회

## 영락주간보호센터 송영서비스 자원봉사자 모집

영락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인의 안전을 위해  
송영서비스 시 차량에 함께 탑승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내 용 : 송영서비스를 위한 차량 보조 탑승자

일 시 : 매주 월, 화, 목, 금(주4일)

시 간 : 오전 8시 30분 ~ 9시 10분 (40분)

담 당 : 영락주간보호센터 문소현 팀장

연락처 : 02)2280-0278

## 편집장 레터

스위스는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유대계의 핏줄을 가진 혼혈민족 국가입니다. 언어도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語)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도 분란 없이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서로 굳은 협동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민족, 단일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늘 내란과 동족상잔으로 시달려 왔고, 나이가 일제치하 35년간의 서글픈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경쟁할 때 “한 사람의 한국인은 무섭지만, 열 사람의 한국인은 무섭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결심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협동과 단결은 가정, 사회, 학교, 군대 등 국가의 기능을 원만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윤활유입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싸움 없이 파벌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란도란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밀레의 「만종」

밀레의 할머니는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크리스천부터 되어라.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림을 그리려면 영원을 위하여 그릴 것이며, 늘 하나님 심판의 나팔소리가 들려 올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타이르셨다고 합니다.

3월 『만남』은 삼일절 101주년과 119대작전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교회에 대한 윤리의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디 3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심판의 나팔소리가 들렸으면 합니다.

편집장 이동훈

2020년 3월호 통권 554호

발행 2020. 3.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김혁태 나광호 우대권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최윤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 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지난 호  
숨은그림찾기 정답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 점잇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말을 하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부터 28번까지 점을 이어보세요 (민수기 22장 참고).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유안미 권사, 캔버스에 유화, 72×53cm, 2017

색색의 백합꽃들이 피어 향기 가득했던 2016년 베다니광장의 화단을 화폭에 담았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마 6:28~29)

하나님이 기르시는 들의 백합화 같이 우리를 아름답게 입히시고 돌보시는 줄 믿는다.